

김윤진 연구원

###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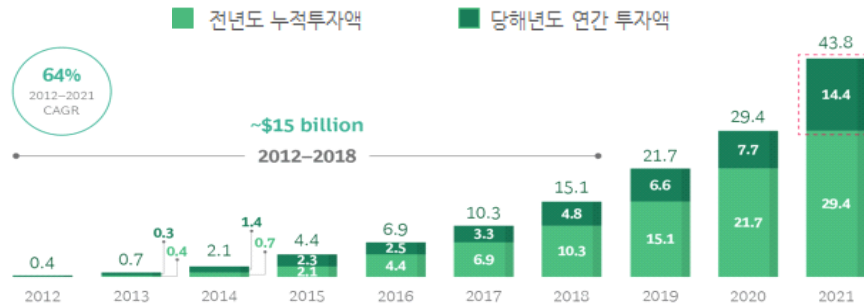
2021년 인슈어테크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, 특히 손해보험과 건강보험 분야에서 Series C 이상의 성장 단계에 있는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한 투자 유치가 가장 활발했음. 2021년 보험업계 디지털 혁신 최우선 순위는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보험인수심사 과정 개선과 보험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험시장과 플랫폼 활용이었음. 한편, 기업공개(IPO)를 거쳐 상장한 글로벌 인슈어테크의 최근 주식시장에서의 성과가 글로벌 보험시장의 성과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○ 2021년 인슈어테크 투자규모가 급증하며 연간 투자금액 증가율이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(그림 1) 참조)

- 글로벌 인슈어테크 투자규모는 2012년 약 4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까지 7년간 누적 투자액이 150억 달러를 넘어섰고, 지난 10년간(2012~2021년) 연평균 증가율 64%의 속도로 성장함
- 최근 글로벌 인슈어테크 투자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2021년 한 해 동안만 약 144억 달러의 투자금이 유입되었는데, 이는 전년 대비 87% 확대된 것으로 2014년 이래 연간 투자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1〉 글로벌 인슈어테크 투자규모 추이(2012~2021년)

(단위: 10억 달러, %)



자료: BCG(2022. 6)

○ 2021년 인슈어테크 투자는 전 보험 영역과 투자 단계에 걸쳐 확대되었는데, 특히 손해보험과 건강보험 분야에서 Series C 이상의 성장 단계에 있는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한 투자 유치가 가장 활발했음(표 1) 참조)

- 2021년 모든 보험 분야 인슈어테크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손해보험과 건강보험 분야 인슈어테크

1) BCG(2022. 6), "The Funding Streak in Insurtech Continues"

투자자 전체 투자금액의 73%를 차지하며 가장 두드러졌고, 생명보험 인수어테크 투자규모가 가장 낮았음

- 모든 투자라운드에서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나, late-stage에서 27건의 메가라운드(Series C 11건, Series D 13건, Series E+ 3건)가 2021년 인수어테크 투자규모 확대를 견인함
- 지역별로는 2021년 미국이 투자 자본의 약 62%를 차지하며 인수어테크 투자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, 유럽(독일/영국/프랑스)과 아시아(중국) 지역에서도 2012년 이래 최고치에 달하는 투자 자본 유입이 있었음

〈표 1〉 2021년 인수어테크 투자 동향 및 사례

보험분야	전체 투자규모	회사명(국가, 투자라운드, 유치 규모): 제공서비스
손해보험	65억 달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Coalition(미국, Series E+, 2.05억 달러): 사이버보험</li> <li>• At-Bay(미국, Series D, 1.85억 달러): 사이버보험</li> <li>• Yuanbao(중국, Series C, 1.75억 달러): 사이버보험</li> </ul>
(개인 손해보험)	(31억 달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Wefox(독일, Series C, 6.5억 달러): 디지털보험사</li> <li>• Extend(미국, Series C, 2.6억 달러): 상품 보증 플랫폼</li> <li>• Leocare(프랑스, Series B, 1.16억 달러): 디지털 보험 브로커</li> <li>• Bought By Many(영국, Series D, 3.5억 달러): 펫보험</li> <li>• One Degree(홍콩, Series B, 0.28억 달러): 디지털보험사</li> </ul>
건강보험	39억 달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Devoted Health(미국, Series D, 12억 달러): Medicare Advantage 플랫폼</li> <li>• Cedar(미국, Series D, 2억 달러): 환자참여(Patient engagement) 솔루션</li> <li>• Zipari(미국, Series B, 0.23억 달러): 환자참여(Patient engagement) 솔루션</li> </ul>
생명보험	6억 달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Ethos(미국, Series D, 3억 달러): 온라인 생명보험(정기보험, 고령자 종신보험)</li> <li>• Laddar(미국, Series D, 1억 달러): 온라인 생명보험(정기보험)</li> <li>• YuLife(영국, Series B, 0.7억 달러): 온라인 단체생명보험(소득보장, 질병보험)</li> </ul>
멀티라인	34억 달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Datong(중국, 2.35억 달러): 디지털 보험 중개사</li> <li>• Policybazaar(인도, Series E+, 0.75억 달러): 디지털 보험 중개사</li> <li>• Kissterra(이스라엘, Series A, 0.76억 달러): 보험마케팅/채널 운영체계 플랫폼</li> </ul>

주: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업은 메가라운드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상위 3개 기업임

자료: BCG(2022. 6); 각 사 웹사이트

○ 인수어테크 기업 설문 결과, 2021년 보험업계 디지털 혁신 최우선순위는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보험인수심사 과정 개선이었으며, 보험데이터(분석)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험시장과 플랫폼 활용이 그 뒤를 이음

- 이 외에도 보험업계는 이머징리스크(사이버/가상화폐/공급망/이상기후) 평가 기술 등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주요한 디지털 혁신 이슈로 꼽음

○ 한편, 기업공개(IPO)를 거쳐 상장한 글로벌 인수어테크의 최근 주식시장에서의 성과가 글로벌 보험시장의 성과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지난 2년간 상장한 인수어테크 중 10개 기업<sup>3)</sup>의 가치를 S&P500 및 글로벌 S&P1200 보험지수와 비교한 결과, 다수기업의 성과가 글로벌 보험시장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2) 투자라운드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를 기업의 위험도, 가치, 규모 및 성숙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며, 이러한 기준은 투자자, 사업 분야, 국가,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투자라운드가 높아질수록 평균투자금액이 커진다고 이해할 수 있음

3) Lemonade, Oscar Health, Doma, Root, Hippo, Accolade, GoHealth, Farmers Edge, SelectQuote, Duck Creek